

국제이해교육 관점에서 살펴 본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경험: 의미와 한계*

조혜영**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을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이슈가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 그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대사회봉사협의회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은 먼저 국제이해교육 요소 중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현지 체험의 기회를 즐기는 계기를 갖게 되고, 문화 간 차이를 좁히는 경험을 한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 성장과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국제이해교육의 주요요소 실천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힘든 일정으로 인한 어려움,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부족, 봉사활동 참가 기회와 제한 등이 제기된다. 끝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의미와 한계를 토대로 향후 해외자원봉사 활동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국제이해교육, 경험, 의미, 한계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의 연구보고서 “청소년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중 연구진 조혜영이 수행한 질적 연구의 일부를 논문의 형식으로 재작성 하였음을 밝힙니다.

**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johye821@daum.net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만큼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상호의존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일상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와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유학과 여행, 해외봉사와 취업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해외 자원봉사활동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증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이태주, 2011).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공여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의 대내외 노력이 지속되어,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 참여 및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권율·이주영, 2012; 한국국제협력단, 2012).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더욱 증가시켜 나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이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90년대 문민정부의 세계화정책 표방으로 국제이해교육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수용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김현덕, 2008a).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몸소 체험하는 활동인 해외자원봉사 참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이태주, 2011). 특히 대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해외봉사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교육 사업 중 해외현장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서 선발과정이 매우 경쟁적임을 보이고 있다(박환보 외, 2014).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이해교육의 중요한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유성상, 2010). 특히 해외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를 체험하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은 타문화와 타사회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국제이해교육 요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 중 어떠한 부분을 주로 체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험과정에서 겪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해외자원봉사 참가가 개발협력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글로벌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해교육의 핵심요소 체험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을 통하여 국제

이해교육의 주요 이슈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또 해외봉사 활동 과정에서 겪는 한계와 어려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사회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자원봉사의 전개과정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의 빈곤문제는 해당국 자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이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선진국이 빈곤국에 제공하는 일방적 원조 개념, 즉,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의미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8~9).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위상은 과거 50여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국가였지만, 1960년대 이후 원조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점차 선진 공여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2000년대 들어,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국제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유·무상 원조기관들의 정책조율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명확한 목적 구조와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한국은 선진 공여국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104~105). 이로써 한국은 주요 공여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책무성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개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는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개발협력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5년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에서 ‘Voluntary’라는 용어가 언급된 이후 UN은 사회개발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실은 2002년 UN총회에서 결의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권고로 나타났으며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협력의 하나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90년에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장기 자원봉사자 44

1) <http://www.worldfriendskorea.or.kr/view/voluntary.about.do> 2014년 11월 1일 인출

명을 파견한 이래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출범하면서 유네스코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한국해외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조문영, 2013: 54). 이와 함께 1996년 9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되어, 1997년부터 전국의 207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로 해외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해왔다(이재득, 2011).

나아가 지난 정부는 2008년 ‘청년 해외봉사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단일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KOICA의 해외봉사단,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한국연구재단의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등 각 행정부처에서 분산 시행하던 해외봉사단 사업이 하나의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로 통합되었고, 이후 2010년 5월 KOICA의 중장기자문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퇴직전문가, 세계태권도봉사재단의 태권도평화봉사단이 추가적으로 통합되면서 봉사단 별로 수립되던 예산이 통합되었다. 2011년에는 태평양아시아협회(PAS)의 대학생봉사단이 WFK-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으로 추가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개 부처, 7개 시행기관, 7개 봉사단이 통합되었다(글로벌발전연구원, 2012: 2; 조혜영·김정숙, 2015: 58).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개인, 사회, 국가와 지구촌 차원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해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협력 방안이자 인류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김영환·이지연·정지

인, 2011; 정지언·김영환·이지연, 2012; 조혜영·김정숙, 2015).

2.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과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

국제이해교육의 근간인 1974년 수립된 국제이해교육 권고 제1조에 따르면, 국제이해는 국제협력 및 평화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국가 간의 선린 우호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강순원, 2014: 5; 이경한, 2014). 한편, 국제개발협력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의 일방적 원조가 아닌, 국가 간 협력과 상생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핵심가치와 관련하여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개발국의 다양한 현장에 직접 참가하여 활동하는 해외자원봉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중요한 실천의 장으로 기능해야 함이 제기된다(유성상, 2010).

즉, 해외자원봉사활동의 근본 취지는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지역사회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적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화 진전으로, 전후의 세계는 국가 간 관계의 긴밀한 연결이 심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적 시각의 함양을 통해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표방한다(Tye, 1999, 김현덕, 2008a에서 재인용).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은 문화 간 이해 증진을 위한 학습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학습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세

상을 바라보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세계적 시각에 대한 교육이다(Tye, 1999: 김현덕, 2008b: 130-131에서 재인용).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문화 간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 간 차별을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이경한, 2014).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는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 함양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반성적 실천도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로 볼 수 있다(유성상, 2010: 27-29). 즉, 다양한 의미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정체성 고취, 성찰하는 반성적 실천 능력을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일방적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반성적 실천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객관화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훈련이다(유성상, 2010, 27-29).

한편,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국제 이해’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강성훈, 2010). 이는 해외자원봉사를 통하여 수원국과의 공동 협력을 도모하

는 것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입장에 대하여 경고하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즉, 한국의 국제사회 원조와 해외봉사 규모의 증가에 발맞추어 공여국 위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원조를 주는 국가의 국익 중심 원조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자원과 식량 확보를 위한 원조, 상품시장과 투자확대, 기술과 제도의 지배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조를 경계하고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태주, 2012; Ngo, 2014; Watson, 2012; 조혜영·김정숙, 2015). 이는 국제이해교육은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지 국가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강순원, 2014, 6).

3.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 선행연구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 관련 연구들에서도, 해외자원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경쟁력 확보나 원조국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과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인식 확장과 개인적 성찰 기회 제고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의 실리적 측면에서의 효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구촌의 지식경제 사회에 적응할 지식과 기술, 경험을 길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Sherraden et al., 2008). 또한 해외자원봉사 경험을 통하여 문화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얻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Jones, 2011).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은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해외진출 증가와 관련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태

주, 2011).

한편, 해외자원봉사 참가는 개인적으로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에 거주하면서 지구촌의 아동과 주민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전 정신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계기를 제공한다고 지적되고 있다(황기우, 2010). 이와 유사하게,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 문화 간 역량과 인내심 증가, 국제이해, 글로벌 시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인다(서홍란·박정란, 2014; Sherraden et al., 2013; Jones, 2005). 그리고 참가자들의 자기성찰, 가치관 변화,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 인식 형성, 심리적 치료 경험 등 내면의 의식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김지만·김예란, 2013; 조문영, 2013).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해외자원봉사는 세계시민 의식 함양이나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기여 차원이라는 교육적 체험을 넘어서서 보다 개인적, 실용적 차원의 동기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자원봉사 참가가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해외 문화 체험의 일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오단이, 2014; 김정모, 2014). 때로는 자문화중심주의에 의거하여 시혜를 베풀거나 자국의 경제적 발전 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태주, 2012; Watson, 2012). 실제로 해외자원봉사는 스펙 관리를 위한 추가 체험으로 인식되기도 하며(조문영, 2013), 참가 동기와 관련해서 취업스펙 5종 세트(학점, 연수, 토익, 공모전, 해외봉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김지만·김예란, 2013). 나아가 해외봉사가 순수한 이타적 행위라기보다는 도구적(instrumental) 활동이며, 참가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합리적 선택에 의한 활동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Pantea, 2013).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하여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은 이타적 동기나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기여 차원과 개인적 실리 추구 차원이 고루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봉사의 국제이해교육 차원의 체험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자원봉사의 여러 차원을 탐색하기보다는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개요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주요 이슈를 관련지어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OICA 해외봉사단 중 WFK-한국대학생봉사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면담 참가자를 섭외하였다. WFK-대학생봉사단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에 의해 운영되며, 방학 중 2-3주간 활동하는 단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다. 주요 봉사 활동 내용은 교육봉사(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영어교육, 태권도 교육), 문화교류, 노력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면담 참가자는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섭외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면담에 참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음 면담 참가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 방식으로 면담 참가자를 확장시켜나갔다. 면담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의 심층성, 의미, 향후 개선 방안 등

이므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섭외가 이루어졌다. 특히,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 준 참가자들의 경우 비교적 현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면담 참가자들은 WFK 청년봉사단원 중 대사협 해외봉사단원 10명이다. 참가자들이 활동을 했던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몽골,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활동국가로 포함되었다. 동일 프로그램

〈표 1〉 면담 참가자 개요

참가자	성별	연령	신분	참가국	참가시기	역할
김시연	여	21	대학생	우즈베키스탄 네팔	2014년 1월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김유민	여	22	대학생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14년 1월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안형수	남	22	대학생	방글라데시 필리핀	2013년 8월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이기영	여	20	대학생	캄보디아 몽골	2013년 12월 2014년 6월	단원 부인솔자
진 옹	남	24	대학생	중국 베트남	2013년 1월 2014년 7월	단원
이서영	여	21	대학생	베트남	2013년 7월	단원
이성훈	남	25	대학생	라오스	2014년 6월	단원
이은설	남	23	대학생	캄보디아	2014년 1월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정경훈	남	22	대학생	캄보디아	2013년 7월	단원
선현웅	남	22	대학생	베트남	2013년 12월 2014년 7월	단원 부인솔자

램에 2회 참가 경험자가 5명, 1회 참가 경험자가 5명이었으며,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주요 참가자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면담참가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며 학교명,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 참가 후의 활동, 개인적 소회와 의미,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2014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가 근무하던 연구원의 회의실, 연구실, 주관기관의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총 2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문하고 그 개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로 참가 동기, 사전 교육, 활동 내용, 향후 제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차 면담은 참가경험에 대해 보다 개인적으로 심층적 의견 청취를 위해 1대일 면담이나 2인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차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 질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봉사참가자들에 대한 간접 정보를 얻기 위해 주관 기관의 담당자의 자문을 거쳤다.

면담과정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음되고 전사가 이루어졌다. 전사 자료는 내용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주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사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유목화 하였으며, 유목화

된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별 분류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으며, 피면담자의 해석이나 발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면담참가자들이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에 대한 전사자료 반복 읽기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이슈와 관련되는 경험을 추출하였다. 면담진행 과정에서 참가자의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국제이해교육 이슈를 표면에 부각시키지 않으므로써 일반적인 해외자원봉사 경험이 자연스럽게 국제이해교육의 이슈와 접목되는 지점들을 찾고자 하였다.

IV. 해외봉사활동 참가 경험과 국제이해교육 주요 이슈

1. 세계의 상호의존성 및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

1) 세계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

세계화에 대한 이해는 경제논리, 신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글로벌화가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대안적 상생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유성상, 2010). 즉, 경제 우위에 있는 국가에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노력과 물질을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노력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 시각의 증진은 국제이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경제, 정치,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지구의 생태계, 기술 환경의 범위를 가로질러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오늘날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접근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세계를 하나의 상호의존체제로 보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김현덕, 2008a).

개인이 국제사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하여 강화됨을 보인다. 대학생들은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봉사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국경을 넘어 진로를 설계하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기영: 저는 봉사 자체가 의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만 그걸 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을 뿐이지. (중략) 예를 들면 제가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이 정도 시기에 태어나서 이 정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중략)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더 뭔가 상황이 낮고 편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외자원봉사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타국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전쟁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세계문제는 지구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현덕, 2008a: 69).

한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봉사를 체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진로

와 관련하여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도 한다. 즉, 자신의 장래 희망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맞기도 한다.

안형수: 저는 진짜 제 전공을 살려서 국내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물론 국내에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도 많고 그런데 왜 가냐고 물어보면 딱 어떤 답은 없는데 (중략)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중략)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계기가 되지 않았다. 그게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가치관을 새겨 준 거 같아요.

2) 사후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연계 지속 의지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해외봉사활동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연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라오스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팀의 경우 현지의 아동들을 위해 책걸상 바꿔주기 활동을 하였다. 자원봉사팀의 후속 활동으로 사진과 영상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상금과 함께, 팀 차원의 모금활동 등을 통해 현지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었다.

이성훈: (생략) 저희는 현지에서부터 조금 되게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먹는 간식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물병 하나에 그 나라 돈이면 얼마데 그 돈이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게 됐거든요. (중략) 그 80만원(상금)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단원 중에 한 명이 그런 국제개발협력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학교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해서 수익 사업을 했고 대

사협 직원 분들도 도와주시고 단원들 자체 모금활동도 해서 160만원으로 불러서 저희가 책걸상 60세트를 1차적으로 바꿔주었거든요. 그런데 60세트라고 해봤자 그 학교의 삼분의 일밖에 안되고요. 그래서 2차로 저희가 조금 있으면 1주년입니다 저희가 처음 파견, 라오스가 처음 파견이었거든요. 26기에서 저희는 이제 작은 거지만 이제 경매 활동을 하려고 자기의 애장품이나 이런 거를 팀 모임 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서로 소개하면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기본으로 해서 2차 책걸상 사업을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거든요.

역시 개별 팀 차원에서 현지의 아동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방글라데시에 다녀온 팀의 경우도 현지의 KOICA 단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모금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원을 통해 단기 이벤트성 행사라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해당 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안형수: 저도 26기 방글라데시 팀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글라데시 저희 현지 아이들이 집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KOICA 단원님께서 KOICA 단원님께 직접 송금을 하고 KOICA 단원님께서 지출하시면 저희에게 사용 내역서를 이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그럼 뒤에서 저희는 한번 끝이 아닌 단기가 정말 단기지만은 끝이 아닌 정말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처럼 해외자원봉사 참가자들의 경우 활동 후에도 타 국가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핵심

요소인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체감하고 실천하는 모습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더욱 상호의존적이 되어 갈 것이다. 국제적인 문제를 단순히 타 국가의 문제로 방관하기 보다는 세계 구성원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현덕, 2008a), 해외자원봉사 참가를 통해 이를 더욱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문화 차이, 문화 간 이해 증진

1) 문화교류 활동 경험의 즐거움

국제이해교육에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문화 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며,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로 간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토대로 국제이해를 실현하며, 차별을 극복하여 글로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에서 문화다양성은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이경한, 2014).

참가자들은 해외자원봉사활동 중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접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들고 있는 부분은 문화교류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음악과 미술, 만들기 활동 등이다. 특히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전문적인 활동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연령대인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지

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종이 접기 활동, 한복 입기 체험, 현지어로 번역한 동요 부르기 활동, 간단한 실험활동, K-POP부르기 활동 등을 즐겨하였다. 현지 언어와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하여 현지아동들과 즐겁게 상호작용한 점은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서영: 한국어나 한국 전통 부채 만들거나 저희가 전통문양 색종이로 한복 접기 이런 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은 없고 해서 그런 시간을 문화교류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처음에 몸으로 함께 친해지니까 훨씬 더 문화교류 할 때 얘기도 더 잘하게 되고 어색함이 없어지는 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은설: 저는 음악 교육을 해서 동요를 알려줬는데 매일 학교 길에 내가 알려준 동요 부르면서 가는 아이 보면서 퇴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중략) 굉장히 멜로디가 많은데 어느 버전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로 소리를 바꿔서 음절 맞게 해서 해줬는데 그런 거랑 뽀뽀뽀 이런 거 알려주고 K-POP을 좋아하니까 그걸 해서 해줬는데 저희가 오늘 알려준 거, 집에 가면서 그런 거 부르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일단 음악 쪽이어서 뿌듯했고…

진 응: 문화를 교류한다는 게 되게 뜻 깊다고 느꼈던 게 그런 한복 접기 같은 것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더라고요. 간직하고, 한복입기 체험도 한복 입고 사진 엄청 찍고 너무 좋다고 그런 거 보면서 뿌듯했구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는데

베트남 국기 한국 국기 그려놓고 막 그런 거 하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하지만 문화교류활동의 경우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한 현지문화체험과 이해보다는 한국 문화 소개에 치중하고 있음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홈스테이 체험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적되었다. 홈스테이의 경우도 실시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홈스테이가 아니더라도 현지의 포레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성훈: 홈스테이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나라마다 좀 상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저희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는 곳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거 같기는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학생 대상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친구를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저희 같은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 하는 것도 좋지만 딱 하루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이 있었으면, 친구랑 둘이 그룹을 지어서 그룹끼리 어디 나갔다가 온다든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되게 많이 걸리겠지만요.

2) 팀원 내의 차이와 다양성 인식

국가 간 문화 차이와 다양성 인식과 함께 자원봉사팀 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체험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대사협 해외자원봉사단의 경우 팀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의 활동 및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만, 한국 내의 다양한 지역과 대학,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으로 조직되어 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성훈: 팀장은 팀장 리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고, 또 단원들은 단원으로서 이런 거를 하면서 ‘아, 이런 팀장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배움의 일부인 거 같아요. 저희도 인솔자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너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공감 많이 되었어요.

이기영: 저는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저는 그전까지는 학교 안에만 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도 자랑 다 비슷한 생각이고, 비슷한 관심을, 관심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닫히고 이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좀 다양한, 예를 들면 전문대나 아니면 전공도 엄청 다양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3. 자아성찰 계기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성찰하는 반성적 실천이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아탐색, 자기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유성상, 2010). 결국 세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간 차이와 다양성 이해와 함께 개별 참가자들의 성찰적 인식은 개인의 변화와 향후 실천을 위한 근본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새로운 가치관의 발견

해외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대학생 연령대는 직업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쁜 시기이다. 소위, 구직을 위하여 학점, 영어인증 점수, 다양한 자격증 등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쁜 시기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에는 여유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자원봉사 경험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며, 행복은 소위 경제력과 좋은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현웅: 개네는 너무 순수하고 정말 맑고 정말 별 거 아닌 거에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되게 작은 거라도 해주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초콜릿이 있어도 개네 있고 우리 있는데 개네가 와서 자기는 안 먹고 우리 주고 친구들끼리 이런 거 다 하는 거라고 그러고 개네는 컴퓨터 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SNS에 중독되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 때문에 저도 약간 인생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야 하나? 원래는 제가 경영학과고 부모님도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시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경계선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재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 찾아서 적은 돈 받는 것도 내 행복인가 하는데 어른들

은 잘 이해 못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단원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부인솔자로 가면서 행복이 사람마다 값어치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해외자원봉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넘어서서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에 몰두했다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스스로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함으로써 자신이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앞으로 닥치는 일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정경훈: 저는 해외봉사 할 때 (중략) 보람도 있긴 있지만 그게 제가 좀 느낀 거는 열정적으로 뭔가 한 거 있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맨날 말하지만 이거 갔다 와서 이거 갔다 온 순간 엄청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적으로 찾아서 삶을 살았으니까 그니까 열정이 생긴 거예요. (중략) 내가 진짜 갔다 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 애들을 보면서 아 난 정말 많이 받았고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느끼는 게 진짜 많아요. 오면 생각이 다 많으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자아성찰 및 자기반성의 계기

해외자원봉사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

들어 주고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참가자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돕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성찰적 입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김시연: 처음에는 내가 경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갔다면, 되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스펙과 경험보다는 제 사고의 확장과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좀 큰 거 같고, 가서 제가 얻어오는 게 많으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중략)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갔다 왔을 때 내가 사고가 뛰어노는 수준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 갔다 왔을 때랑, 세 번 갔다 왔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자원봉사를 다녀온 대학생들의 경우 해외봉사 참가 이전에는 어려운 사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활동을 마친 후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배우고 온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이은설: 내가 쫓던 마음 그대로 개네들이 나한테 직접 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돌아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겠지만 돌아오는 게 많다는 거

를 느끼면서 해외봉사 잘 다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내가 얼마나 평소에 마음을 쏟았나, 쏟은 게 많은 만큼 돌아오는 게 크다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선현웅: 지원한 것도 군대 있을 때 아는 친구 동영상 그거 하나 보고 그냥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생각은 이번 겨울에도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고, 중기도 한 번 가고 싶고 그런데 거의 모든 단원들 생각이 내가 더 배우고 왔다 이런 거거든요.

4. 한계와 어려움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는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직은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낯선 사회, 특히 물질적 환경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여건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 봉사를 위한 열정 대 현지 환경

대학생들은 해외자원봉사를 떠나기 전에 가졌던 기대나 열의가 해외봉사 초반에 열악한 현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다 현지에 파견된 참가자들의 경우 열악한 현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의 음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경훈: 가기 전에는 파이팅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하자. 근데 아 생각처럼 생각지도 못할 만큼 열악해요. 진짜 아니 많이 놀랐어요. 이정도로 열악한가? 너무 달랐어요. 저희가 문화 교류도 마을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저희는 좀 생각했거든요. 뭐 무대도 좀 제대로 하겠지. 막상 할 때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저희 팀 애들 다 ‘다 도와주고 오자.’ 이랬는데, 진짜 힘드니까……. 저희가 첫날에 모든 기를 다 쓴 거예요. 첫날에 애들 한 명씩 다 잘 놀아주고 하다가 둘째 날 지나가면서 힘들어서 애들이 오잖아요? 학교를 버스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애들이 막 와요.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웃음) 다 초월하더라고요. 좋아요. 애들이 좋기는 좋은데…….(중략) 한숨 한 번 쉬고 파이팅하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 앞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중략)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김유민: 점심을 학교에서 나오는 거로 먹었거든요. 그 교육하는 학교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현지식에 가깝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원들이 되게 많이 남기고 안 먹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현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강요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런데 너무 편하게 한국식만 찾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어려웠었고요.

특히 관리자의 입장이 되어서는 파견단 팀원들이 현지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해외자원봉사에 임하는 팀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현지에서 음식에 대한

거부감, 숙소에 대한 불평, 문화체험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설: 아무거나 잘 먹는데, 가리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개인차이니까 그건 또 뭐 건들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일단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탐방을 못하는데 문화체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저는 현지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 놓고 문화체험 안 시켜주느니 이런 뭐 이렇게 의식주 세 개중에 두 개나 벌써 캄보디아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왜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무조건 입맛에 안 맞다고 투정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캄보디아를 갔으면 캄보디아 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아마 몸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지만 몸 이전에 정신 상태부터 바뀌어서 해외봉사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선현웅: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숙소를 대하는 태도가 저희가 무슨 여행을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고 저희한테 주는 음식이 그렇게 심한 현지식도 아니고 개네들이 먹는 문화고 개네들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숙소 보자마자 다들 여기서 어떻게 자냐는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어디 못갈 데 간 건 아니거든요. 개네가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 굳이 해외봉사를 네가 택한 사람이라면…….

해외자원봉사 참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갈등하게 된다. 해외 체험이나 타문화 체험에 대한 기대에 부

풀어 해외자원봉사를 떠나는 경우 현실에서는 해외문화 체험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즉, 열악한 현지 식생활과 거주환경 체험으로서의 문화체험보다는 관광 스타일의 여유로운 체험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형수: 단원들의 해외자원봉사 생각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 생각했던 게 어느 수준이었던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냥 해외봉사는 하지만 가서 단원들끼리도 되게 많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유롭고 휴식시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이처럼 예상보다 열악한 현지 환경에의 직면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인 현지 문화 체험과 교류활동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글로벌 공동체 참여는 대한 적극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2) 봉사활동 전문성에 대한 한계 인식

현지 환경의 열악함 외에도 개인 참가자들의 전문성 정도는 국제이해교육 요소 체험에 대한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해외문화 체험이 아닌 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계획된 활동을 일정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보다 심화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현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더 활동을 심화시키고 싶지만 현지어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은설: (생략) 힘든 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친해지면 현지어 관련 되서 애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말을 하고 더한 걸 묻는데 저희는 끝이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될 거 같은데 안 되는 게 현지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서 현지어 많이 알아가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요구를 많이 받았지만 참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그게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해 간 프로그램이 현지의 돌발적 상황이나 진행과정상의 시행착오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오류를 겪기도 한다. 해외자원봉사는 다양한 현지 여건과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 때문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해 간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새롭게 현지 상황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경훈: 저는 욕심이 많아서 문화교류도 엄청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고, 교육도 엄청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인솔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 많이 하는 건 처음이라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서 저희 이름표 나눠주고 소개하는 데에 수업시간이 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일차에 다해야 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일차 넘어가서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2일차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중략)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었죠. 준비한대로 준비는 이만큼 했으면 보여주는 건 반도 안 되고. 욕심이 많았죠.

김유민: 사실 노력봉사가 저희가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현지에서는 가장 필요했던 일들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결로 따지자면 단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현지를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3개월 준비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교육을 더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현지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훈련이나 충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함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 노력봉사를 통하여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취지와 달리 대학생 수준에서 현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의 강도나 전문성, 안전성 문제 등 현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높아서 수행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경우,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단지 하고자 하는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진 용: 시멘트 까는 거예요. 아스팔트는 그 위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제 저희는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환자가 속출한 거예요. 너무 다들 힘들어 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때문에 문화 활동이나 여러 교육봉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어서 의욕도 안생기고 그래서 그게 좀 노력봉사의 강도가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 노력봉사의 시간이 짧아지거나 그런 식으로도 뭔가 대책

이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영: (생략) 시멘트를 나르는 작업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이제 여기저기 공사하는 장비 때문에 요철도 많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안전모도 안 쓰고 신발은 그냥 자기 개인 운동화 신고 그냥 장갑 하나 끼고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튀어나온 못을 밟았는데, 이거는 정말 운이잖아요. 진짜 사전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도 아니었고 안전하게 누가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놓은 그런 거였는데 노력봉사가 대학생들이 무슨 전문적으로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노동의 한계가 있잖아요.

3) 참가 기회 제한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자아성찰의 기회 등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 관련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녀온 뒤에 느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등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며 실제로 다시 가는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좀 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이기영: 저는 약간 단기봉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그냥 어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많이 한

다고 생각하는데 이 꼭 한 명이 두세 번 가야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 번 갔던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스탬프 찍듯이 저 같이 갔던 단원 중에 실제로 일곱 번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특히 스스로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정경훈: 다 관심은, 해야지, 해보겠다, 한 번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중략) 근데 막상 실천은 못하는 거죠. 현재 자기 상황이나 해외봉사 같은 거는 봉사학점이나 봉사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학점을 채우려면 학교에 미리 신청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도 다 이것저것 하느라 다 바쁘잖아요.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대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경쟁률이 세서 지원을 하더라도 붙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 시기를 놓치면 더욱 가기가 힘들어진다. 한편,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도 더욱 확대되어서 모르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은설: 경쟁률이 너무 세서……. 그리고 방학마다밖에 못가는데…… 이게 방학이 1학년 1학기 방학 다르고 4학년 1학기

방학이 달라가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못가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이게 방학이 대학생이 여덟 번이긴 한데 이제 적기가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라던가 그런 쪽의 학생들이면 모르겠지만 매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이게 여덟 번 중에 1학년 1학기랑 1학년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1학년과 4학년 취직한다면 실질적으로 남은 게 네 번인데 그 경쟁률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몰라서 못가는 사람,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로 못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를 세심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이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된다.

선현웅: 홍보가 엄청 미흡한 거 같아요. 저처럼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홍보 포스터가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그 포스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단기봉사 그거 홍보하는 거를 본적도 없고 대사협 홈페이지도 저도 형처럼 붙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봤고……. 홍보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찾아봐야지……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을 국제이해교육의 핵심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이슈가 얼마나 체험되고 있는지 그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먼저 국제이해교육 요소 중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갖게 된다.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사후 지원 활동을 통해 개인이 국제사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신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며, 국경을 넘어 진로를 설계하거나 봉사도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 요소 중 문화 간 차이나 다양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현지 활동 중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현지 체험의 기회를 즐기는 계기를 갖게 되고, 문화 간 차이를 좁히는 경험을 한다. 한국 문화 요소와 현지의 언어를 결합한 동요 부르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거리감을 좁히는 경험을 한다. 더욱이, 문화 간 차이 뿐 아니라 봉사팀 내의 다양성을 접함으로써 개인 간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도 갖는다.

또한 해외자원봉사 참가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해외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이는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인 개인의 반성적 실천의 주요 계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해외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요소 실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먼저, 대학생들의 경우 해외봉사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기대는 현지의 열악한 환경과 힘든 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해외 체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빠빠한 일정, 음식과 숙소의 불편함 등과 맞서야 하며, 여유로운 해외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대학생 참가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한계를 깨닫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현지 언어, 현지에서 요구되는 노력 봉사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한적 여건은 문화교류가 현지인들과의 상호교류 보다는 비교적 한국 문화요소 전달에 치우치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또 봉사를 통한 글로벌 공동체의 참여에 한계로 작용함을 드러낸다.

한편, 해외자원봉사 참가는 대학생들의 글로벌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만 참가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에 대해서도 지적된다. 특히,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해외봉사활동 참가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아니다.

이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경험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외자원봉사의 근본 취지에 대한 교육이다. 여기서는 특

히 국제이해교육의 핵심요소와 관련하여 해외자원봉사가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은 지양하고, 세계공동체에 대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사회에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국민들이 다양한 이주민이나 외국인과 일상적으로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적고, 자민족중심주의적 태도와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적 의식과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인권, 평화, 문화 간 이해, 세계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이 필요하다(한건수·한경구, 2011). 이와 함께, 해외자원봉사 참가를 위해서는 참가 이전에 개인적 참가 동기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요구된다. 해외자원봉사 동기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다는 이타적 동기와 자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기중심적 동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참가자의 자기 성장을 위해 굳이 개발도상국가가 활용될 필요가 있는지, 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 실현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Tiessen, 2012; Ngo, 2014).

둘째는 효율적인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사전교육에서 파견단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와 더불어 해외자원봉사를 가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기 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교육과 함께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의 근본취지에 대한 교육을 숙지한 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해서 파견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교육에 대한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는 해외자원봉사 내용의 개선이다. 대학생들은 익숙지 않은 현지 언어로 현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언어를 단기간에 의미도 모르는 채 외운 뒤 가르치는 것 보다는 현지의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일방적인 공연보다는 상호 문화 체험을 하며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노력봉사의 경우에도 현지 환경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활동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연령대의 참가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현지 또래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위주로 하는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전반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녀온 뒤에 느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등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며 실제로 다시 가는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좀 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해외자원봉사 참가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5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경우 78.5%, 19세부터 24세의 경우 81.7%가 해외자원봉사 참가에 관심이 있음을 보였다(김정숙 외, 2014).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참가를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해외봉사 참

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조혜영·김정숙, 2015).

다섯째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및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봉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국제개발협력이나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용어는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 저개발국가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봉사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제안한다. 참가자들의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를 세심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이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해외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강성훈(2010).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 **교육발전연구**, 26(2), 149-172.
- 강순원(2014).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9(2), 1-31.
- 권 율, 이주영(2012). 2012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글로벌발전연구원(2012).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종합평가**. 서울: 글로벌발전연구원.
- 김영환, 이지연, 정지연(2011). **해외봉사단 국가브랜드 교육프로그램연구**. 2011 국가브랜드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김정모(2014).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참여동기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279-289.
- 김정숙, 조혜영, 이덕난, 이태주(201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만, 김예란 (2013). 고독과 빈곤의 조우, 혹은 환대의 경계: 한국 대학생 봉사 여행에서의 주체 형성에 대한 소고. **문화와 사회**, 14, 7-50.
- 김현덕(2008a).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평가와 과제. **비교교육연구**, 18(4), 57-81.
- _____(2008b).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교육의 역할**. 김선옥 외 6인 (편).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서울: 동녘. 115-146.
- 박환보, 최정운, 김안나, 김혜지(201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KOICA ODA교육원·한국교육개발원.
- 서홍란, 박정란 (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 연구. **청소년학연구**, 21(2), 139-168.
- 오단이(2014). 국제자원활동 동기 및 현지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373-399.
- 유성상(2010).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 **국제이해교육연구**, 5(1), 5-33.
- 이경한(2014). 국제이해교육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탐색. **국제이해교육연구**, 9(2), 33-57.
- 이재득(2011). 한성대학교 초기 해외봉사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 **소통과 인문학**, 12, 5-31.

- 이태주(2011). 대학생 해외봉사여행과 국제개발 진로탐색. **소통과 인문학**, 12, 33-59.
- _____(2012). **이명박 정부 ODA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2012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5.
- 정지연, 김영환, 이지연(2012). 해외파견 봉사단 대상 통합 소양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육문제연구**, 43, 83-111.
- 조문영(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반 빈곤’과 ‘대학생’의 지형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45-91.
- 조혜영, 김정숙(2015).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활동 참가 경험과 의미: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55-84.
- 한건수, 한경구(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6(1), 1-33.
- 한국국제협력단 (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KOICA·World Friends Korea.
- 황기우(2010).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망. **학생생활연구**, 14호, 14-24.
- Jones, A. (2005). Assessing International Youth Service Programmes in Two Low Income Countries. *Voluntary Acti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7(2), 87-100.
- Jones, A. (2011). Theorising International Youth Volunteering: training for global (corporate) work?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6(4), 530-544.
- Ngo, M. (2014). Canadian Youth Volunteering Abroad: Rethinking Issues of Power and Privileg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16(1), 49-61.
- Pantea, M-C. (2013). The Changing nature of volunteering and the cross-border mobility: where does learning come from?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35(1), 49-64.

- Sherraden, M., Lough, B. J., & Bopp, A. (2013). Students serving abroad: A framework for inquir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17(2), 7-42.
- Sherraden, M., Lough, B. J., & McBride, A. M. (2008).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Servic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Voluntas*, 19, 395-421.
- Tiessen, R. (2012). Motivations for Learn/Volunteer Abroad Programs; Research with Canadian Youth. *Journal of Global Citizenship & Equity Education*, 2(1), 1-21.
- Watson, I. (2012). Governments and NGO in Asia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ing South Korea's Model of Foreign Aid. *Asian Studies Review*, 36, 79-103.

Abstract

**Experiences of College International Volunteers in term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Meanings and Shortages**

Hye-Young J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college international volunteers's experiences in term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This study focused on how main issues of EIU were encountered through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s and what were their difficulties, and further sought the ways of improvement. For thi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college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 programs organized by 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had chances to raise awareness of global inter-dependence and community life in relation to main issues of EIU. And, they had opportunities to enjoy native life through cultural exchanges and experiences to decrease cultural differences. In addition, they had chances to experience self retrospection and reflection. Although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s involved meaningful experiences in relation to major issues of EIU, they revealed several shortages. Those are as follows: unfamiliar circumstances and very demanding work schedule, lack of skills needed for service work, and limited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Based on meanings and shortages

of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s, I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Voluntee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xperiences, Meanings, Shortages

투고신청일 : 2015. 10. 30

심사수정일 : 2015. 12. 15

게재확정일 : 2015. 12. 19